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2)

道安法師 遺誡九章 (도안법사 유계구장) ③

其三曰 離已出家 永辭家族
 기삼왓 경이출가 영사가족
 無親無欲 澆淨無欲 吉則不歡 凶則不感
 무친무소 청정무욕 길즉불환 흉즉불감
 超然縱容 愜然離俗
 초연종용 활연리속
 志存玄妙 執真守璞 得度獲濟 普濟無礙
 지존현묘 쥬진수박 득도광제 보몽부록
 如何無心 仍舊染纒
 여하무심 임착염착
 空淨長短 鉢兩升斛 與世爭利 何異僥倖
 공정장단 수량승곡 여세쟁리 하이동복
 經道不明 德行不足
 경도불명 덕행부족
 如歸出家 徒自毀辱 今故誡示 宜自洗浴
 여시출가 도자해욕 금고회시 의자세욕

이 도인이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군왕의 신하되지 않는다.
 널리 천하가 한가지로 받들고 섬기기를 신감히 하며 머리 조아려 공경하나 빈부를 헤아리지 않으니
 오로지 청정행을 닦아 자리아타 함이라.
 덜어내고 배어난 시주공양의 무게가 쌀 한톨에 일곱근 상당이다.(그만큼 무겁다는 뜻)
 어찌 태만하여 은혜에 보답치 않고 방자히 놀아나는 일에 몸을 맡겨 심신으로 헛되고 번잡하게 하는가.
 계행 없이 시주받 먹으면 죽어서 태산지역에 떨어져 굶는 쇠로 밥을 삼고 굶는 구리를 마시게 되리니
 그와같은 고통은 범구경에서 진술한 바이라 이제 집짓 가르쳐 약정하노니 마땅히 고쳐 거듭 날지이다.

其五曰 離已出家 離三心
 기오왓 경이출가 호삼심
 穢難不著 惟道是欽
 예잡불착 유도시흠
 志多清潔 如玉如水
 지참정결 여옥여빙
 當修經戒 以濟精神 衆生繫祐 並度所親

그 셋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길이 가족을 마다한 것이다.
 가깝고 멀게 없으며 청정무욕하여 길하다고 반기지 않고 흉하다고 슬퍼 않는다.
 초연히 모든 것을 놓고 활연히 세속을 떠나며
 뜻을 불법에 두어 진리를 본삼아 질박함에 머물어 법을 얻어 널리 제도하고 두루 복복을 받게해야 한다.
 그렇거늘 어찌 무심하여 세속에 집착

뜻을 불법에 두고 진리 본삼아 행하고 세속 이해에 집착 말고 道만 흠모하라

해 물들려 하는가.
 쓸데없이 길고 짧음을 따지고 피와 말로 헤아려 세속과 더불어 이해를 다루면 어찌 하인배와 다르랴.
 공부엔 밝지 못하고 덕행도 부족하니 이런 출가는 자신을 험잡고 욕되게 할 이라 이제 집짓 가르치노니 마땅히 심신을 씻고 씻을 지이다.

당수경계 이제정신 증생공우 병도소친
 如何無心 隨俗淨心 縱觀四大 恣其五根
 여하무심 수속부침 종기사대 자기오근
 道德深淺 世事更深
 도덕수현 세사경심
 如是出家 與世同塵 今故誡示 幸自開神
 여시출가 여세동진 금고계약 행자개신

其四曰 離已出家 離三道人
 기사왓 경이출가 호삼도인
 父母不敬 君帝不臣
 부모불경 군제불신
 普天同奉 事之如神 稱富貴 不稱富貴
 보천동봉 사지여신 계수치경 불계부빈
 尙其清淨 自利利人
 상기청수 자리리인
 減重之重 一米七斤
 감중지중 임미칠근
 如何能變 不能報恩 倘能證道 身當虛領
 여하대만 불능보는 의중유일 신의허번
 無戒食施 死入秦山 燒鐵爲食 煎燒鐵因
 무계식시 사입태산 요철유식 응동관인
 如斯之痛 法有所陳 今故誡示 宜改自新
 여사지통 법무소진 금고회약 의개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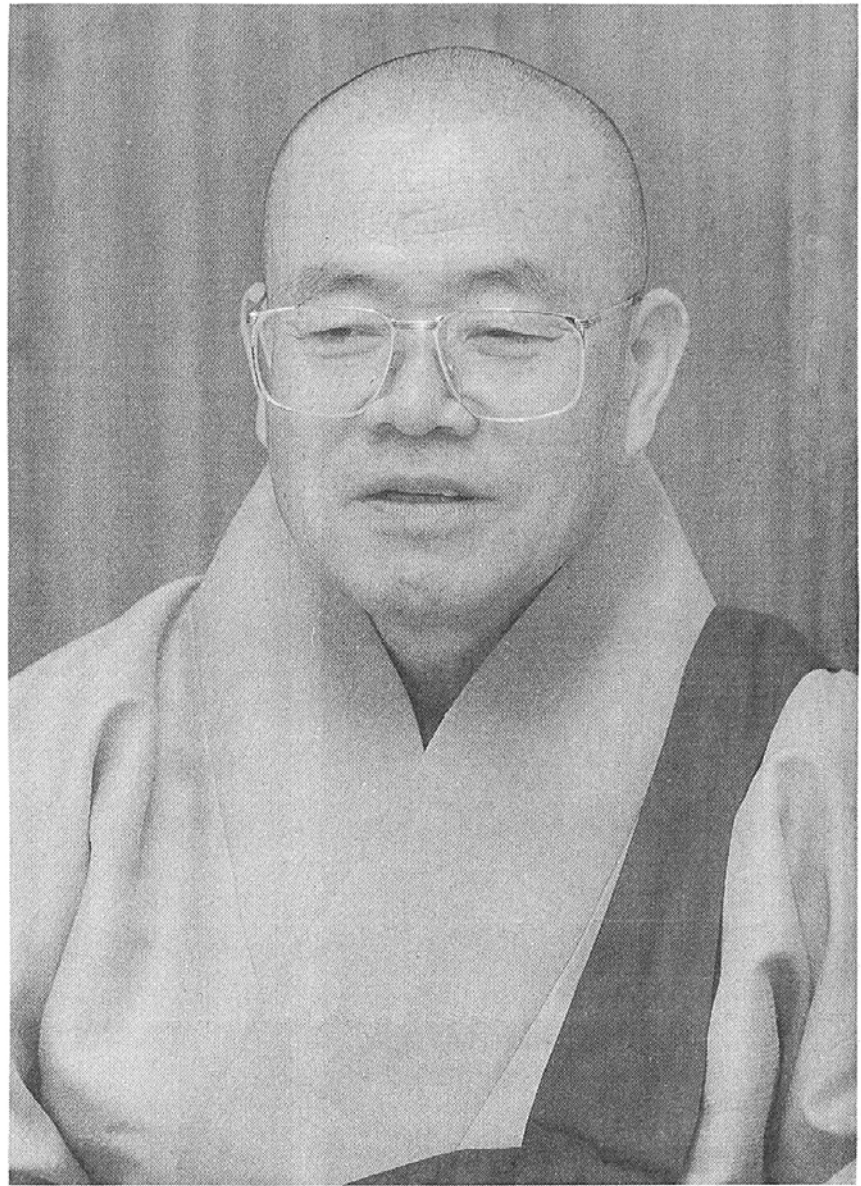
그 다섯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이 례하여 식심(청정심·무심)이다.
 더럽고 잡스런 것에 집착 말고 오로지 도만 흠모하라.
 뜻을 맑고 깨끗이 하되 옥구슬 같이, 이를 같이 하여
 마땅히 경륜과 계행을 닦아 정신을 가드라히 하면 증생이 도움을 입고 아울러 부모·친척·벗들을 제도하게 된다.
 그러하거늘 어찌 공부엔 마음을 두지 않고 세속을 따라 부침하며 사대·오근을 방자하게 할 것인가.
 도덕은 마침내 알아지고 세간일만 더 깊어질 것이니
 이같은 출가는 속진과 한가지라 이제 집짓 경계하여 약정하노니 바라건대 스스로 정신차릴지이다.

그 넷째. 그대 이미 출가했으니 이를

龍眼

“베훈다는 마음으로 살면

고산스님 齋戒사주진



약 력
 • 1934. 1. 27 경남 울산 생
 • 48년 통산스님 은사로 범어사 득도
 • 61~69년 청암사 범어사 강사
 • 69~75년 범문사·조계사·은해사·쌍계사 주지

지금의 우리 사회는 너무나 혼탁해서 하루라도 빨리 도덕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너져가는 윤리·도덕을 바로 잡는 길은 오직 부처님 법의 실천과 포교번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이 2천5백년전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일곱걸음을 걸으신 후에 한손은 하늘을 가르키고 한손은 땅을 가르키며 하신 말씀이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류, 심지어 미물, 곤충, 초목, 총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불성(佛性)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불성 자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첫 사자후로 "이렇게 거룩한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는 왜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는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가르침을 듣고 생각을 돌려서 깨달아라"고 설하셨습니다. 이렇듯 49년간 설하신 부처님의 법문은 구절구절

부처님은 첫 사자후로 "너희는 왜 암흑세계에서 헤매고 있는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을 돌려서 깨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다 윤리·도덕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3천위와 8만수행을 갖추신 분입니다. 위엄과 거동이 3천가지, 신행에 옮긴 부처님의 행이 8만수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3천위 8만행을 듣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배우려고 하지는 않고 그저 부처님 앞에 달려와 바라기만 할 뿐입니다.
 화엄경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는 복은 '거러지' 복이요, 주는 복은 '보살복'이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거러지 복을 계속 지으려고만 하니 참 담담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처님, 나도 남과 같이 남에게 자비심을 베풀게 해주세요"라고 빌어야 그 사람에게 복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달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금생 내내 불교를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뀌말 하지만 부처님께서서는 인연으로 종을 삼아 심신을 주창했으며,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信心)입니다. 신심은

믿을 '심' 마음 '심'자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너희들은 너희 마음을 믿어라"며 스스로의 마음에 가책되는 행을 하는 자는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자는 '무위무작(無爲無作)'(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고 조작함이 없는 것)으로 행을 삼아 생을 살아가니 죄지를 일이지 않고 얘기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애착을 가지고 아옹다옹 싸울게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공자께서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종을 삼아서 신의를 주창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모든 성인을 통틀어서 살펴 본다면 그 어느 성인도 윤리도덕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분 가운데 일거수 일투족 도덕에 대한 말씀을 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 뿐입니다.
 우리 스님네들이 입산해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초발심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부처님께서서는 '큰자는 형으로 삼고, 작은 자는 아우를 삼으라' '높은 소리로 침벌지 마라' '웃기를 헤치고 팔을 흔들고 돌아다니지 마라' '병든 사람이 있거든 자비한 마음으로 간호를 잘

해라' '음식을 먹을 적에 찹찹 음식 씹는 소리, 후루룩 물마시는 소리를 내지 마라'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자기 몸 가운데 잘못됨을 항상 꾸짖고 고쳐 착한데로 옮기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8만대장경의 경·율·론에 윤리·도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율장>에는 '자기의 잘못을 먼저 살피고 다른 사람의 흠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근본입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사람의 허물은 열가지도 넘기 마련입니다. 자기 허물 없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는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율장은 불문에 귀의했을때 오

정신·육체를 잃어가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계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생수,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 수련장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남선원

■ 안내 ☎ (0593) 34-1115~6

海東佛敎大學
 -통신 수강생 모집-

● 법사(法師) 과정
 고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신심이 돈독하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20세 이상의 남녀. 통신교재와 테이프 공부하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하에 따라 단기간 내에 과정을 이수하여 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삼장법사(三藏法師) 과정
 대졸 학력 이상의 불자로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불교 포교에 뜻이 있는 자로서 포교원 또는 암자를 설립·운영할 분으로 불교지도자로서 자격에 손색이 없는 25세 이상의 남녀 불자. 통신교재와 테이프 공부하며 본인의 실력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 내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국제 포교사(國際 布敎師) 과정
 승속·성별·연령 학력 제한 없이 해외포교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해외거주 동포로서 불심이 돈독한 분이면 가능.
 ■ 과목: 영어(필수)· 해당지역언어· 불교 전반
 ■ 시간: 매주 수·목·수요일 10시~12시, 오후 5시~7시
 ■ 통신도 가능

※ 본 대학에서는 87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의 권위 있는 불교 관계 교수님과 석학 승려들의 강의 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는 바, 통신강의 수업을 받기 때문에 특같은 교육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통신 과정 수업은 시간·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 지금은 단계 하십시오.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본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법사나 삼장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화·서신 주시면 자세한 안내서·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수시 입학 가능 ■
 문의처: 110-320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110 경향빌딩 2층
 해동불교대학 교무처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

海東佛敎大學
 학 장 장 이 두
 대학원장 김 지 권

海東佛敎大學 儀式敎育院
 學長 張 二 斗
 院長 鄭 大 隱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16기 佛敎(儀式(범음, 범패)學)인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사물(목탁, 태평, 요령, 범고) 다루는 법, 도량원,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속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상주인공, 대명관속, 신공작법, 지장경,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업 반: 요점파라, 천수파라, 도량계, 다계 작법(나비춤) 등

■ 모집인원 : 00명
 ■ 교육기간 : 3개월(과 과정)
 ■ 구비서류 : 본대학 소정위서 사진 1매
 ■ 원서접수 : 1995년 10월 1일 ~ 11월 13일
 ■ 개강일시 : 1995년 11월 13일 오후 5시 정각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청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110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에서 종묘방향
 구산빌딩 앞 경향빌딩 2층
 전화: 741-0495-6 / 팩스: 763-4603